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정 희 용 · 임 숙 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elf and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Elderly Women in Seoul

Hee Yong Jeong · Sook Ja R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988. 6.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elf and Clothing Interest,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of Clothing interest and Perception of self by the demographic variables.

Perception of self was measured with Perception of self test from Choi's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Appearance, Clothing comfort, Fashion, Psychological dependence, Clothing economics were measured with items from Gurel's Study and Creekmore's for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items were drawn from preceding measures and slightly modified.

Data were affected from 305 purposively selected elderly women over sixty dwelling in Seoul by means of interview and questionnaire. For statistical analyses, frequency distribution,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hree groups classified by Perception of self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Appearance, Fashion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2. There was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othing interest and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Psychological dependence. Demographic variables not affected Clothing comfort.

3. There was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self and demographic variables.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Perception of Self.

4. There was parti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subscales of the Clothing interest. Appear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lothing comfort, Fashion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clothing comfor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ppearance, Psychological dependence. Fash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ppearance, Clothing comfort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I. 서 론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생활수준과 보건위생등이 개선되어 인구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전체 노인에 대한 여자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¹⁾ 성별인구의 불균형 상태는 여자노인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노인문제는 노인의 생리적인 변화 및 기능의 퇴화가 사회변화와 결부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노인문제 중 고독과 소외의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는 노인자체에서 발생하는 무능력이나 무용성에 기인한 내적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인 외적요인의 영향력에 관련되어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용한 존재로 지각하게 된다.²⁾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지각은 행동결정의 주체가 되며,³⁾ 인간행동의 일부본인 의복행동은 노인의 자아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년기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노인의복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신체보호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심리학적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성이 자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 지각 또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부정적 지각에 수반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소외감과 관련되는 문제해결 방안과 육체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의복의 제반문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 변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2. 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정도, 배우자관계, 가족구성, 생활정도, 종교)에 따른 의복관심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지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의복관심변인 상호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노인의 특징과 개념

노년기는 물리적인 면에서 만족하더라도 사회적 심리적 만족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나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심리적 특성을 갖게된다.⁴⁾ 따라서,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어야하며, 적극적으로 원만한 활동이 되기위한 자아지지(ego support)요소로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노년기 여성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정되는 연령, 본인 자신이 노인이 되어 감을 느끼는 연령, 노년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정도등을 고려하여,⁵⁾ “60세이상의 연령을 가진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B. 의복관심

의복관심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의 신념, 의복의 지식과 의복에 기울이는 주의를 의미한다.⁶⁾ 의복관심은 일생을 통해 변화하여, 사회경제적 수준 및 수입, 직업, 교육, 출신지역의 크기. 성장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인들의 의복관심은 그들이 노화되고 있으며, 또한 필연적인 노화현상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에 따라 의복에 대한 관심도는 변화한다.⁷⁾

의복관심 변인의 분류기준이나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심변인을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으로 분류하였다.

C. 자아지각(自我知覺)

인간의 행동이란, 행동하는 자의 즉각적인 자아,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지각향성검사(Perceptual Orientation Scale)는 주관적 지각이 인간의 내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리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향성(知覺向性)이란, 자신과 타인과 사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경향을 의미하게 된다.⁸⁾

지각향성에서 자아에 대한 지각이란,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자기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지각은 자아개념의 본질이 되며, 지각향성의 의미는 자아개념과 대체적(代體的)의미로 사용되어진다.⁹⁾

인간행동의 중심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Davis의 연구에의하면, 노년기는 그들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낄때 더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고 싶게 된다고 하였으며, 자신감과 자부심이 높은 사람

이 자신의 의복을 잘 입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¹⁰⁾ 의복관심과 자기평가 집단평가와의 관계는 유의하여 의복관심도가 낮은 사람이 자기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¹¹⁾

따라서 지각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긍정적 이어서 자신에 만족한 상태이므로 의복에 부족감을 덜 느끼고, 불만이 적으므로 만족도가 높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A. 측정도구

조사방법으로 설문지의 방법과 면접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과 자아지각에 관한 문항, 의복관심에 관한 문항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구학적 특성 조사는 6문항으로, 분포는 표 1과 같다.
- 자아지각 조사는 최정훈이 작성하여 표준화된 지각향성 검사중 자아지각에 대한 20문항이다.
- 의복관심에 관한 조사는 Gurel의 "Clothing Interest;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와 Creekmore의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에서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연구자가 작성한, 5영역의 35문항을 사용하였다.

B. 표집대상과 자료수집

표집대상은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학교와 노인정중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노인학교와 2개 노인정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7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설문지는 318명에게 배부·실시되었으나 그 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한 13부를 제외하고 305부가 통계 처리에 사용되었다.

C. 자료분석

1.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자아지각은 0.79, 의복관심은 0.81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의복관심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의복의 경제성 변인의 신뢰도가 0.25의 수치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복관심 변인에서 제외시켰다.

〈표 1〉 표집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 305)

인구학적 변인		f	%
연 령	60~64	58	19.0
	65~69	88	28.9
	70~74	86	28.2
	75세이상	73	23.9
교육정도	무 학	85	27.9
	국민학교	114	37.3
	중 학교	46	15.1
	고등학교	51	16.7
	대 학교	7	2.3
	기 타	2	0.7
배 우 자 관 계	동 거	69	22.6
	별 거	8	2.6
	사 별	228	74.8
가족구성	혼 자	44	14.4
	배우자와 들만 동거	53	5.6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17	17.4
	자녀와 동거	189	62.0
	친척과 동거	2	0.6
생활정도	상	23	7.5
	중	253	83.0
	하	29	9.5
종 교	무 교	38	12.5
	천 주 교	31	10.1
	기 독 교	125	41.0
	불 교	106	34.8
	기 타	5	1.6

〈표 2〉 의복관심 변인의 신뢰도

의복관심변인	신뢰도
외모에 대한 관심	0.62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0.59
유행에 대한 관심	0.69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0.68
의복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	0.25

2. 자아지각에 따른 의복관심,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관심,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의복관심 변인 상호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A. 자아지각 조사

자아지각조사에서는 최정훈의 지각향성 검사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점수범위는 지각향성 검사를 근거로 구분되었다. 자아지각의 점수분포와 빈도 비율은 표 3과 같다. 자아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집단은 80.5점 이상으로, 47.9%의 노년기 여성들은 자신이 인류의 한부분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치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것은 남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향성 검사를 실시한 정미실의 연구¹²⁾ 결과인 61.8%의 긍정적인 지각보다는 낮으나, 지체부자유를 대상으로 한 임현규의 연구¹³⁾ 결과인 12.2%의 긍정적인 자아지각보다는 높다. 자아에 대한 지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70점 이하로 27.8%이며, 24.3%인 70.1점에서 80.4점까지의 집단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지각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임현규의 연구에서는 68.7%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19.1%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지각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노년기 여성은 청소년기 남학생보다는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않으나, 지체부자유자 학생보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였다.

B. 의복관심 조사

의복관심도는 표 4와 같이, 노년기 여성은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복의 안락함에 대해 관심이 높은 이유는 체형변화와 기력저하등의 건강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C. 자아지각에 따른 의복관심의 차이

표 5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년기 여성의 의복관심은 자아지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자아에 대한 지각은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의미 있는 관제를 보였으며,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노년기 여성이 체형변화 및 건강

〈표 3〉 자아지각과 점수분포

(N : 305)

점수범위	f	%
80.5~100	146	47.9
70.1~80.4	74	24.3
20 ~70	85	27.8
합 계	305	100.0

〈표 4〉 의복관심도 비교

(N : 305)

의 복 관 심 변 인	M	SD
외모에 대한 관심	2.787	0.281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	2.881	0.257
유행에 대한 관심	2.134	0.559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2.562	0.400

상태로 인하여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을 제외한 건 의복관심 변인인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의복관심과 자기에 대한 평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사람이 자기평가 점수가 낮다는 Takahashi와 Newton의 연구 결과¹⁴⁾와 일치하고 있다.

D.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관심의 차이

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교육과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정도에 있어서는 중류이상의 집단이 하류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복의 안락함에 대한 관심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부자유하고 신체적 비율 변화때문에 안락감을 중요시하므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Kefgen & Baldwin의 연구,¹⁵⁾ Gawne & Oerke의 연구¹⁶⁾

〈표 5〉 자아지각에 따른 의복관심의 차이

(N : 305)

의복관심변인	자아지각	N	M	SD	DF	F	Grouping
외모에 대한 관심	긍정적	146	22.753	1.806	2	11.48***	A
	긍정·부정도 아닌	74	22.487	2.502			A
	부정적	85	21.353	2.763			B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긍정적	146	14.513	1.031	2	1.42	
	긍정·부정도 아닌	74	14.472	1.088			
	부정적	85	14.211	1.759			
유행에 대한 관심	긍정적	146	13.233	3.207	2	2.90*	A
	긍정·부정도 아닌	74	12.730	3.340			A B
	부정적	85	12.141	3.546			B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긍정적	146	18.459	2.568	2	6.24**	A
	긍정·부정도 아닌	74	17.824	2.771			A B
	부정적	85	17.141	3.032			B

***p<.001 **p<.01 *p<.05

〈표 6〉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에 대한 관심의 차이

(N : 305)

인구학적변인		N	M	SD	df	F	Grouping
연령	60~64	58	22.397	2.143	3	1.20	
	65~69	88	22.613	1.578			
	70~74	86	21.988	2.166			
	75 이상	73	22.205	2.990			
교육정도	무학	85	21.505	2.322	3	5.29***	A
	국민학교	114	22.570	1.885			B
	중학교	46	22.456	2.167			B
	고등학교이상	60	22.783	1.748			B
배우자관계	동거	69	22.623	1.383	1	2.07	
	사별	228	22.179	2.442			
가족구성	혼자	44	22.295	2.501	3	0.64	
	배우자와 둘만 동거	17	22.764	1.251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53	22.547	1.408			
	자녀와 동거	189	22.174	2.450			
생활정도	상	23	22.391	2.388	2	4.91**	A
	중	253	22.430	2.085			A
	하	29	21.068	3.104			B
종교	무교	38	22.447	2.062	3	1.42	
	천주교	31	21.677	2.970			
	기독교	125	22.528	2.010			
	불교	106	22.150	2.361			

***p<.001 **p<.01

〈표 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의 차이 (N : 305)

인구학적변인		N	M	SD	df	F	Grouping
연 령	60~64	58	14.362	0.949	3	0.30	
	65~69	88	14.386	1.087			
	70~74	86	14.360	1.788			
	75 이상	73	14.532	1.041			
교육정도	무 학	85	14.458	1.258	3	0.67	
	국민학교	114	14.473	0.924			
	중 학교	46	14.485	1.222			
	고등학교이상	60	14.200	1.867			
배우자관계	동 사	69	14.493	0.933	1	0.36	
	거 별	228	14.386	1.392			
가족구성	혼 자	44	14.409	0.995	3	0.10	
	배우자와 들만 동거	17	14.352	1.114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53	14.509	0.890			
	자녀와 동거	189	14.417	1.406			
생활정도	상	23	14.826	0.576	2	1.41	
	중	253	14.363	1.325			
	하	29	14.482	1.352			
종 교	무 교	38	14.526	0.761	3	1.14	
	천 주교	31	14.709	0.863			
	기 독교	125	14.272	1.272			
	불 교	106	14.433	1.549			

〈표 8〉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행에 대한 관심의 차이 (N : 305)

인구학적변인		N	M	SD	df	F	Grouping
연 령	60~64	58	13.084	3.134	3	1.58	
	65~69	88	13.227	2.850			
	70~74	86	12.174	3.893			
	75 이상	73	12.863	3.371			
교육정도	무 하	85	12.353	3.400	3	0.80	
	국민학교	114	13.078	3.510			
	중 학교	46	12.782	3.231			
	고등학교이상	60	12.950	3.099			
배우자관계	동 사	69	13.188	3.054	1	1.28	
	거 별	228	12.666	3.445			
가족구성	혼 자	44	11.075	3.660	3	2.09	
	배우자와 들만 동거	17	13.529	2.741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53	12.660	3.180			
	자녀와 동거	189	13.047	3.363			
생활정도	상	23	13.434	3.653	2	1.04	
	중	253	12.830	3.350			
	하	29	12.103	3.166			
종 교	무 교	38	11.394	3.053	3	5.02**	A B B B
	천 주교	31	11.838	3.436			
	기 독교	125	12.792	3.226			
	불 교	106	13.556	3.439			

**p<.01

<표 9>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의 차이

(N : 305)

인구학적변인		N	M	SD	df	F	Grouping
연령	60~64	58	18.121	2.778	3	2.06	
	65~69	88	18.079	2.648			
	70~74	86	17.326	3.031			
	75 이상	73	18.342	2.646			
교육정도	무학	85	17.906	3.115	3	0.14	
	국민학교	114	17.912	2.827			
	중학교	46	17.804	2.647			
	고등학교이상	60	18.133	2.425			
배우자관계	동거	69	18.362	2.229	1	2.32	
	사별	228	17.776	2.950			
가족구성	혼자	44	17.636	2.796	3	1.21	
	배우자와 자녀와	17	19.117	1.615			
	동거 동거	53	18.000	2.261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189	17.873	3.014			
생활정도	상	23	18.913	2.556	2	3.47*	A A B
	중	253	17.968	2.734			
	하	29	16.896	3.287			
종교	무교	38	13.078	2.725	3	0.93	
	천주교	31	17.193	2.880			
	기독교	125	17.904	2.725			
	불교	106	18.122	2.850			

*p<.05

<표 10>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지각의 차이

(N : 305)

인구학적변인		N	M	SD	df	F	Grouping
연령	60~64	58	82.000	14.305	3	7.69***	A A C B C B
	65~69	88	80.091	10.591			
	70~74	86	76.372	12.916			
	75 이상	73	72.329	14.107			
교육정도	무학	85	71.576	15.845	3	8.64***	A B B B
	국민학교	114	79.368	11.681			
	중학교	46	80.070	12.500			
	고등학교이상	60	80.600	10.046			
배우자관계	동거	66	81.043	12.493	1	6.38*	A B
	사별	228	76.482	13.330			
가족구성	혼자	44	77.136	14.775	3	1.97	
	배우자와 자녀와	17	81.647	11.516			
	동거 동거	53	78.377	14.104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	189	76.656	12.728			
생활정도	상	23	81.565	12.210	2	4.35*	A A B
	중	253	77.889	12.762			
	하	29	71.379	16.828			
종교	무교	38	76.316	19.752	3	1.64	
	천주교	31	73.032	14.596			
	기독교	125	78.752	11.238			
	불교	106	77.340	12.169			

***p<.001 *p<.05

를 지지한다.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행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유행에 대한 관심은 종교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를 갖고있는 집단은 종교를 갖지않은 집단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이유는 종교를 갖고있는 집단은 정기적인 모임으로 타인과 접촉할 기회가 비교적 많기때문에 자신의 의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은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생활정도에 있어 상류와 중류는 하류보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복과 계층과의 상관연구를 한 Kelley의 연구결과¹⁶⁾와는 상반되나,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현의 결과¹⁷⁾와는 일치된다 즉, 의복의 심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상류 또는 중류의 생활을 하는 노년기 여성들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기때문이라 생각된다.

E.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지각의 차이

표 10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은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관계, 생활정도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은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관계, 생활정도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연령에 있어서는 만 60세에서 64세까지의 집단,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집단, 생활정도에 있어서는 상류집단이었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연령에 있어서는 만 60세에서 64세까지의 집단,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집단, 생활정도에 있어서는 상류 집단이었다. 이것은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¹⁷⁾에서 여자노인의 경우 계층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자주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F. 의복관심 변인 상호간의 관계

표 11에서와 같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행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아 지각에 의해 분류된 3집단(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지각하는 집단,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의복관심변인중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낮다.

둘째, 자아지각은 인구학적 변인중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관계,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과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동거할 경우에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집단은, 연령에 있어서 만 60세에서 64세까지의 집단,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이상 졸업한 집단, 배우자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집단, 생활정도에 있어서 상류의 집단이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관심의 차이는 다

<표 11> 의복관심 변인 상호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수 (N : 305)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0.184**		
유행에 대한 관심	0.397***	0.047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0.582***	0.220***	0.460***

**p<.001 **p<.01

음과 같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인구학적 변인중 교육과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교육과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은 인구학적 변인과는 무관하게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유행에 대한 관심은 종교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종교를 갖고있는 집단이 무교의 집단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은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상류와 중류는 하류보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

네째, 노년기 여성의 의복관심을 비교한 결과,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유행에 대한 관심 순위로, 관심이 높다.

다섯째, 의복관심변인은 상호간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의 안락감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의 안락감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심리적인 의존성이 높은 반면 유행에 대한 관심과는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도 높다.

노인들의 소외감은 사회활동 참여와 관계가 있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Davis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인들은 외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될때 더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의복을 잘 입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의복은 노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자아지지(自我支持)의 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에 있어 의복과 외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과등을 제공하므로써, 의복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적절한 의복착용으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여, 자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첫째, 노인들에 대한 조사가 노인학교나 노인정에 다니지 않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독특한 성격을 갖는 노인들의 의복행동에 대해,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측면의 의복행동 변인이 첨가되어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세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성별, 지역별, 출신별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5)
- 2) 노인복지편람 사회복지총서 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41 (1985).
- 3) 최정훈,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90~93 (1972).
- 4) Costantakos, C.M., The Family and Elderly, *Journal of Home Economics*, Sept. (1977)
- 5) 전재일, 노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1978).
- 6) Gurel, L.M. and Gurel, L., Clothing Interest: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Home Economics Res. J.*, 7, No.5, 279~281, (1979).
- 7) Hurlock, E.B., Development Psychology (5th Ed.), N.Y.: McGraw Hill Book Co. 323~324, (1975).
- 8) 최정훈, 지각향성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9,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2).
- 9) 박은주, 직장남성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0) Davis, R.W., The Relationship of Social Preferability of Self Concept in an Aged Population, *J. of Gerontology*, 17, 431~436, (1962).
- 11) Takahashi, C.L. and Newton, A., Perceptions of Clothing, Conformity, *J. of Home Economics*, 59, No.9, 721, (1967).
- 12)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3) 임현규, 지체부자유자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4) Kefgen & Baldwin의 연구를 인용한 Ryan, M.S. Clothing, 129, 282, (1966).
- 15) Gawne, E.J. and Oerke, B.V. Dress: The Cloting Text Book (3rd Ed.) Illinois: Chas, A. Bennett Co. 338, (1969).
- 16) Kelley, E.A. and Diagle, C.W., Adolescent Clo-

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 J.*,
7, No. 5, 238, (1979).

- 17) 이정현,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성
남시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8) 박재간, 박춘식,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
한 실태조사, 서울: 한국노인 문제연구소, 9-13,
(1983).